

성삼 후 23주일(연중 32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토마스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32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분 기도 집 전 자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 있
으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밝혀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1독서 아모 5:18-24 말 은 이
성 시 시편 70편 다 함 께



- 1 하느님, 나를 살려 주소서.
○ 주여,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 2 이 목숨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
○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 3 나를 보고 깔깔대던 자-들,
○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 4 그러나 하느님을 찾던 자-들은
○ 모두 당신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 5 나는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 하느님, 빨리 오소서.
 - 6 주여, 더디 오지 마소서.
○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이시여.
- 영광이 성부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1데살 4:13-18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태 25:1-13 말 은 이

설교 토마스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91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72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97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 | 이번 주일(11월 12일) | 다음 주일(11월 19일) |
|--------------|---|----------------|
| 1독서 | 조장은 | 김소정 |
| 2독서 | 조성산 | 권용준 |
| 대 도 | 윤희진 | 황선숙 |
| 다음주일 전례독서 | 열왕상 8:22-30 시편 84 1베드 2:1-5, 9-10 마태 6:25-33 | |
| 성 가 | 642 526 530, 531 342 | |
| 복 사 | 백수빈, 최하현 | 보혈조력 정요셉 |
| 다음주간 교회청소 | <5조>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 |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1월 12일 성삼 후 23주일(연중 32주일) · 가해 · 녹색

제27-46호

항상 새롭게 오시는 하느님을 깨어 기다리는 교회



복음서와 서신서가 집필되던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곧 임박 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이므로 그 사이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주님과 만날 터이니 이 희망과 믿음 안에서 안심하고 깨어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1데살 4:13-18). 이 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에만 있지 않고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이라는 진리를 신앙의 눈으로 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 준비하는 일에 소홀한 미련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신부는 어둔 밤이 되자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 매달릴 뿐 새롭게 일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밤이 되어 마음의 빛도 사라져 버린 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는 빛이 사라져 어둠만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의와 환대와 친절을 낳지 못하므로 하느님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귀찮아하십니다(아모 5:21-24).

교회는 "주여, 더디 말고 빨리 오시어 나를 구원하소서"(시편 70)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서로를 독려합니다. 이처럼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와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부와 같은 교회는 다시 오실 하느님이 이미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표징을 끊임없이 식별하면서, 새로운 일을 펼치시며 오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느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는 하느님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깨어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11월 19일(주일)

모든 교우의 날 · 추수감사주일

1부 : 감사성찬례 & 견진성사(7명) / 풍성한 애찬 / 2부 : 작은 음악회(노래하는 영서)

* 모든 교우의 날 (교회축성기념일, 교회설립기념)

1997년 9월 21일, 정기적인 전례가 시작한 날을 산본교회 설립일로 삼아 이제 26주년을 기념합니다. 더불어 2012년 11월 18일은 이곳 성전을 축성한 날로 기억하며 11주년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우들의 마주치는 눈에서 기쁨이 되고, 잇닿은 가슴에서 사랑이 되며, 맞잡은 손에서 친교와 봉사의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벗들 모두 초대하여 기쁘게 모입니다.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루와 한해와 일생의 삶이 모두 "눈물로 씨 뿌리고, 힘써 일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과정입니다. 목적을 깨닫고 도전하며, 과정을 성실히 인내하고, 결실을 감사하며 나누는 일이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봉헌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립니다.

성 마틴 수사 주교 축일 (11월 11일)

성 마틴은 4세기에 지금의 헝가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프랑스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장차림으로 말을 타고 가던 어느 날 그는 추운 겨울 길바닥에 벌거벗고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곤장 칼을 빼서 자신이 입은 망토를 잘라서 거지를 입혔습니다. 그날 꿈에 그 거지가 나타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거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탓일까요? 성 마틴은 군인으로 사는 일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고, 곤장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평화 신앙을 살고 싶었던 그는 곧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독하게 숨어서 수행하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삶과 영성이 일치했던 그를 눈여겨 본 사람들은 성 마틴을 주교로 삼고 싶었습니다. 주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사람을 피하여 거위 우리에 숨었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엉클어진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역지로 주교가 된 그는 오늘날과 비슷한 교구 체제를 마련했고, 본교회 사목구를 개편하여 지역 사람을 돌보게 했습니다.

성 마틴은 험벗은 이웃에게서 하느님을 보았고, 자신의 작은 도움뿐만 아니라 일생까지 던지며 살았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청원을 존중하여 따랐고, 그 일에 충실하여 책임을 다해 신앙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중세 이후 오늘날까지 유명한 순례길로 사랑받는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를 향한 길에서,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성 마틴 유물 성당에 꼭 들르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모든 교우의 날(교회축성기념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6주년, 교회축성 11주년을 기념합니다. 뜻 깊은 날 주교님이 순방하여 견진성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 알림

◆ 성령 세미나 안내 (7주간 진행, 안양교회)

11월 4일(토)~12월 16일(토) 오후 3시~5시 30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1월 교회위원회 보고

- 세 교회 연합예배 후 후속모임(성령세미나) 논의
- 모든 교우의 날, 추수감사주일 행사 논의

◆ 성서 퀴즈대회 & 찬양 예배

오늘(12일) 애찬 후 1시에 열립니다.
성서 퀴즈대회 범위 : 마태오복음 1~12장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회 모임 안내

오늘(12일) 오후 1시 50분 / 어린이 예배실

◆ 세례성사 교육 안내 (세례성사 - 12월 24일)

11월 14일(화) 오후 6시 30분 / 예비자 - 김훈나

◆ 견진성사 교육 안내 (견진성사 - 11월 19일)

1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예비자 - 채희영
11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 고미순 이도연

◆ 수요 성서공부

11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신자 사역자 모임 (장소 : 교회)

11월 16일(목)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 제 59차 교구의회

11월 18일(토) 오전 10시 / 성공회대학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신하림(14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470,000원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이윤식 이은가 임혜지/장성환 최서은 최수재/지영주 최자연

■ 주일헌금 223,000원
권순호 김승현 박선희 박종례 백수빈 백옥경 유정훈 이윤식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조준행 지병애 최순덕 최용옥 최용준 황선숙

■ 주일학교 4,000원
유아윤 유아현 이하린

■ 감사헌금 260,000원
김은하 이숙영 지영주 최용옥/윤희진(가옥축복) 허재원

■ 특별 목적헌금 60,000원
이윤식, 최미혜(늘푸른 복지관)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 전례독서 (11월 13일~18일 / 연중 32주간)

| | 독서 | 복음 |
|--------|---------------------|-------------|
| 13일(월) | 지혜 1:1-17 | 루가 17:1-6 |
| 14일(화) | 지혜 2:23-3:9 | 루가 17:7-10 |
| 15일(수) | 지혜 6:1-11 | 루가 17:11-19 |
| 16일(목) | 지혜 7:22-8:1 | 루가 17:20-25 |
| 17일(금) | 지혜 13:1-9 | 루가 17:26-37 |
| 18일(토) | 지혜 18:14-16, 19:6-9 | 루가 18:1-8 |

※ 기도해 주세요 ※

◆ 세례성사 예비자 김훈나 이지안 장재현 장태현

◆ 견진성사 예비자 고미순 이도연 채희영 이동우 이서현 정선우 최하현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 이요한 김훈나